

국화 향으로 무르익는 가을 여행길 행복 · 추억 선사

‘보석처럼 빛나는 백제왕도 익산’...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중앙체육공원에서

올해 14회를 맞이하는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가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백제왕도 익산’을 주제로 열린다. 시는 1995년 지역의 무궁한 발전과 진취적인 기상을 염원하는 의미로 불로장수, 강한 번식력과 적응성을 가진 국화를 시화로 제정해 국화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1995년 풍년농사를 경축하는 농업인 한마당축제로 소규모 국화 전시회로 시작된 농촌자연축제다. 2004년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로 축제명이 변경되어 농업의 6차산업화와 도·농이 함께 즐기고 상생하는 축제로 개편되고 있다. 지난해 국화축제에 다녀간 이들은 67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국화축제는 지역 로컬푸드 판매와 홍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189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



← 지난 17일 진선섭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제14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겉기만 해도 힐링되는 백제왕도 익산 국화 정원

올해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가을 추억여행 일번지로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축제장을 들어서면 행복정원, 백제왕도정원, 꿈과 희망정원 등 3개의 힐링정원(면적 3만 3,000㎡)을 만날 수 있다.

행복정원에는 정유년 닭의 해를 맞아 ‘어둠을 깨우는 붉은닭’의 기운을 받아 행복을 기원하는 붉은닭 꼬꼬와 2018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소망나무 전망대가 관광객을 맞이하고, 백제왕도정원에는 미륵사지석탑, 왕궁리5층석탑 등 세계유산도시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이 연출된다.

특히 올해부터 유료 입장되는 ‘꿈과 희망정원’은 국화축제 특별전시장으로 꾸려진다. 무료전시장과 차별을 두고 가장 우수하고 특별한 작품으로 전시돼 아름다운 국화 속을 걸기만 해도 힐링이 된다. 또한 형형색색 아름다운 국화로 만든 6,000㎡ 규모의 국화공전은 장관을 이루며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꿈과 희망정원 속 ‘동물정원’에서는 유니콘, 복두개비, 달에서 온 토끼, 백조의 호수 등 이야기 속 동물들을 만날 수 있고, 우수 국화작품이 전시되는 실내전시관이 1,650㎡규모로 1.2관으로 나뉘어 마련된다. 보석의 도시 익산을 상징하는 10m 높이의 보석의 문과 행운과 장

수의 상징 탄생석길, 서동선화 황금마차, 알록달록 우산길 등이 마련되는 보석사랑정원을 만날 수 있다.

야간에는 야간 LED 음악분수와 일곱빛깔 LED조명이 함께 어우러져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축제로 축제의 밤을 낮보다 더욱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농상생 및 소득 창출형 축제

익산시 국화축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로 형형색색 국화꽃을 보기위해 많은 시민들이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차있다.

국화축제는 민간군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축제로서 매년 육군부사관학교 군인들은 국화수송을 지원하고, 해병전우회 등 교통봉사단체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축제부서에 근무하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은 전국 최고의 국화축제를 위해 13여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축제 기획 및 조형물을 직접 제작하고 1년 동안 7만점 정도의 국화를 애지중지 직접 키워내 타 지자체 보다 적은 예산으로 성공적인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화훼농가들은 국화 계약재배를 통해 축제장에 전시될 화분국 민여집을 납품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국화납품 및 축제장에서 국화판매를 통해 매년 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한편, 제14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올해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소득창출형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축제장내 6,000㎡ 규모의 특별전시장에 한해 유료화하고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의 전시구간인 2만9,000㎡는 중저렴한 가격으로 개방한다.

시는 이를 위해 3월부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9월 8일까지 열린 시의회 제204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받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장료를 3,000원으로 결정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는 전액 교환쿠폰으로 교부해 축제장내 판매관, 먹거리관, 체험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익산시민에 대해서는 익산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유 입장료가 면제된다.

▲축제 볼거리, 즐길거리 등 풍성

국화축제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광객의 흥을 돋우기 위해 10일동안 다채로운 시민 참여형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여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참여공연, 생활문화 동호회 공연, 시립예술단 공연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그 의미가 남다르고, ‘천만송이 노래 자랑’은 전년보다 확대 개최되며 예선은 11월 4일(토) 10시부터 진행되며 본선은 축제 마지막 날인 11월 5일(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또한 깊어가는 가을밤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

행복 기원 ‘붉은 닭 꼬꼬’ 선배 꿈의 희망정원, 특별전시장으로 유료화되는 특별전시장 제외 나머지 대부분 전시구간은 무료 공연 · 체험프로그램도 다채



되며, 세라믹아트 토이체험, 콘크리트 조형만들기 체험 등은 전북문화관광재단 후원으로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원을 익산시장은 “백제왕도 익산 국화축제의 행복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축제로 만들어 깊어가는 가을 전국 최고의 추억여행 일번지로서 관광객들에게 익산의 행복을 가득 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축성 564주년

제44회 고창모양성축제

THE 44TH GOCHANG MOYANGSEONG FESTIVAL

역사는 미래다

2017년 10월 25일(수) ~ 29일(일)

주최 (사)고창모양성보존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국방부, 전라북도, 고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NH농업 고창군지부, 고창군 지역 농축협, 전북은행, 웰파크시티, 월파크시티, 석정일.C.C, KFS,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